

<2016년 9월 4일 주일말씀>

## 성공과 승리를 하려면 빨리하기다. 고치기다. 많이 하기다

본 문 이사야 19장 1절 (핵심 봉독)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핵심 봉독)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핵심 봉독)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성공과 승리를 하는 데 절대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주제는 ‘성공과 승리를 하려면 첫째, 빨리해라.  
둘째, 고쳐라. 셋째, 많이 해라.’ 입니다.

◎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 ◆ 새벽잠을 깨고 눈을 뜨고 누워 있는데,  
선연하게 “빠른 자가 성공한다.” 하고,  
마음속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님이 옆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 ◆ 그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른 씻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눈을 떴어도 빨리 일어나야 <1시 기도 시간>에 성공한다.

이와 같이 세상만사 모든 일도 성공하려면, 빨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해 주게 되었습니다.

- ◆ 지난날 섭리역사를 봐도 <제때 한 일>을 보면,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작고 크게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때 빨리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 ◆ 왜 빨리해야 될까요? <때>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빨리’ 물에 음식 재료를 넣어야 됩니다.

물이 계속 끓으면 물의 양이 부족해지고,

거기서 더 끓으면 물이 다 줄아 버립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그때 ‘빨리’ 요리해야 됩니다.

- ◆ 만사의 모든 일은 <때>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고로 ‘**제때 빨리**’ 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승리한 것들>을 보면, 모두 제때 서둘러서 빨리했습니다.

- ◆ 성자 떠나시기 전, 휴거 전에

2013년~2014년까지 매일 긴급하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자는 “**빨리해라. 시간이 없다.**” 하고,

그 육을 통해 하루도 쉬지 않고 숨넘어가듯 외치셨습니다.

그러다 2015년 3.16에

<구원역사 6000년의 비밀>이며 <신약역사의 비밀>인

<휴거>를 이루시고 ‘휴거된 영들’ 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때 성자의 말씀을 듣고 ‘**빨리한 자들**’ 만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못 한 자들>은 ‘다음 기회’ 에 했고,

다음 기회에 했어도 지금까지 후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 ◆ 올림픽이나 각종 운동경기에서도 ‘승리의 표준’ 이 있습니다.

곧 <**더 빠른 자**>를 ‘우승자’ 로 정합니다.

- ◆ **빠른 자가 성공한다.**

이 법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법>입니다.

고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안 바뀝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할 때나, <자기 목적>을 두고 행할 때나 빨리해야 '성공하고 승리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 ◆ <승패를 겨루는 경기>를 할 때도, <삶>을 살 때도  
'더 빨리하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권권 안>에서도

'더 빨리하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성령님은 이날 새벽 <특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섭리사 모두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 주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빨리 행하여

그들보다 앞에 가서 얻어라! - 함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하나님의 백보좌 상징 작품>인 <자연성전 야심작>도  
빨리했기에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1999년 1월 8일에** '해외 선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빨리 못 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육'을 쓰고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빨리하도록 서두르고 재촉하신 것입니다.

고로 삼위께서 ‘그 육’ 을 쓰고 직접 <야심작>을 세우시고,  
그 작품을 ‘하나님의 백보좌 상징 작품’ 으로 정하셨습니다.

- ◆ 이와 같이 <앞날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해야 하니,  
<현재 해야 될 것들>을 ‘빨리’ 해야 됩니다.
- ◆ 빨리해야 - 늦기 전에 하게 되고,
  - 가인 편이 가져가기 전에 하게 되고,
  - 사탄의 때가 와서 사탄과 악인들이 공격하기 전에 하게 되고,
  - 상대편이 공격하기 전에, 상대편과 겨루기 전에 하게 됩니다.
- ◆ 빨리해야 - 시대와 상황이 뒤바뀌기 전에 하게 됩니다.
  - 뒤쫓는 자들이 앞서가기 전에 하게 됩니다.

####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1

- ◆ (중요)  
항상 섭리세계는 사명자가 있어서 먼저 깨달으니,  
먼저 행하도록 <말씀>을 줍니다.  
  
또한 사랑하니, 먼저 행하도록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얻으려면, 이때 빨리 행해야 됩니다.  
  
먼저 <섭리사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 가 오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때’ 가 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이 늦게 행하면,  
그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때>가 되어 그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섭리인들이 해도 세상과 같이 하니  
많이 못 얻고, 빛도 강하게 나지 않습니다.

◆ (중요)

섭리사 안에서도 - 주는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고,  
〈할 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때 빨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청중의 때〉가 되니,  
모두에게 〈말씀〉도 주고 〈할 일〉도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청중’이 모두 알고 하니,  
〈먼저 가르쳐 줬는데 빨리 안 한 자〉는 다른 자에게 뺏기게 됩니다.

◆ 자연성전에 돌을 실어다 쌓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니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논밭〉에도 ‘큰 돌’이 많았고,  
〈돌을 파는 곳〉에도 ‘돌들’이 많았고, 값도 아주 헐었습니다.

그때는 논밭의 주인들이  
‘논밭에 묻혀 있는 큰 돌’을 빼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 ‘돌’을 빼 오면서, 그들의 논도 넓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보다 쉬웠습니다.

또 〈돌을 파는 곳〉에도  
좋은 애석, 오석, 호피석 등 자연석이 많았고,  
그때는 가격도 헐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험하게 ‘큰 돌들’을 사다가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섭리사만 ‘큰 돌’을 사 왔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안 사 갔습니다.

- ◆ 부지런히 ‘큰 돌들’을 사다가 쌓고 3~4년이 지나니,  
〈돌 값〉이 점점 비싸져서 〈금값〉이 되었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큰 돌’까지 마구 사 가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돌 파는 곳〉으로 점점 밀려오게 되었고,  
돌 값이 전보다 2~3배로 비싸졌고, 돌 하나 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빨리했기에 자연성전의 큰 것들은 다 공사했습니다.

빨리했기에 ‘큰 돌들’을 사다가 웅장하게 쌓았고,

빨리했기에 ‘큰 나무들’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고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자연성전〉을 건축했습니다.

- ◆ 이와 같이 〈먼저 빨리하라고 특혜를 줬을 때〉 절실히 깨닫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빨리해야 됩니다. (아멘!)

- ◆ 〈치어, 모텔, 예술 세계〉도

〈섭리사〉는 기성에서 생각하지도 않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청중이 밀려오게 했습니다.

약 30년 전, 낙성대 시절입니다.

그때 5~7년 동안 〈기성〉보다 빨리 ‘예술 선교’를 시작하니,  
그만큼 쉽게 많은 자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기성들>도 ‘예술 선교’를 시작하고,  
<이단들>까지 ‘예술의 눈’을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술>로 80% 이상 생명들을 데려가니,  
이제 우리는 그들과 겨루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더 열심히 해야  
그들보다 더 얻게 됩니다.

##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2

- ◆ 먼저 줬을 때,  
먼저 하라고 특혜를 줬을 때,  
사랑하니 먼저 가르쳐 줬을 때 - 안 하면 안 됩니다.

- ◆ <휴거 역사>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섭리사>만 ‘휴거’를 알고 질주하면서,  
세상에 ‘휴거의 소망’을 심어 주어 오게 합니다.

가다 보면 이 말씀이 흘러 나가게 되고,  
<기성>도 우리같이 가르칩니다.

- ◆ 하나님이 시대 구원자를 통해 <휴거 복음과 비밀>을 선포하시어  
사랑하는 자들부터 ‘휴거’를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 ‘휴거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때 어서 빨리 <완전한 휴거>를 이루고,  
빨리 <휴거 복음>을 전하여 청중이 오게 해야 됩니다.

각 교회별로 뭉쳐 단단하게 행하기도 하지만,

<청중 집회, 휴거 집회>를 자꾸 해야 됩니다.

<성령집회, 부흥집회>를 통해  
자꾸 ‘휴거의 소망’ 을 심어 줘야 됩니다.

때가 되면, 기성과 이단들도 ‘휴거 이론’ 을 가지고 행합니다.

섭리인들과 지도자들은 어서 정신 차리고 빨리해야 됩니다!

어서 빨리 <휴거 말씀>으로 시대를 잡고 다스려야 됩니다!

- ◆ 외국에서 <수석>을 주우려고 다닐 때,  
그곳에는 <수석>을 주워 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선생 먼저’ 깨우쳐 주셔서  
철저하게 하면서 <수석>을 주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그들에게도 ‘그런 문화’ 가 왔고,  
그때부터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형상석>을 싹 주워 갔습니다.

- ◆ 먼저 줬을 때, 빨리해라.  
사랑하니 먼저 가르쳐 줄 때, 빨리 해라.  
먼저 하라고 말씀을 주며 특혜를 줄 때, 빨리해라.  
빨리하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한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행해야 됩니다!

- ◆ <신앙의 스타>도 그러합니다.

8~10년 전에는

<결혼하지 않고 주와 시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정말 후회 없이 살려면 해라.” 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목숨 걸고 귀히 보고 감사하며 행한 자들은

귀히 여김도 받고, 커서 지도자들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히 여기지 않고 육적 사랑으로 흘러 값없이 산 자들은

현재 ‘사망권’에서 살고 있거나

혹은 ‘영원히 사망’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통으로 생각하고 보통으로 산 자들은

지금도 ‘보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 ◆ 지금은 결혼 안 하고 섭리사를 떼다고 해도 거의 ‘스타 허락’을 안 합니다.

<때>가 지나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 ◆ 먼저 가르쳐 주고 기회를 줬을 때 빨리해야
  -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가르쳐 주고 기회를 줬을 때 빨리해야

- 시대와 상황이 뒤바뀌기 전에 하고,
- 사탄이 공격하기 전에, 상대편이 자기와 겨루기 전에 하고,
-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기 전에 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 ◆ 매일 ‘빨리’ 안 하면, 매일 ‘실패’ 합니다.

- ◆ 주가 말씀했을 때 <빨리하는 자>가 ‘실력자’이며,  
그가 <빠른 구름>이 되어

‘주의 뜻’ 을 실현하고 ‘자기 소원’ 도 이루게 됩니다.

<전환>

◎ 지금까지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  
첫 번째, ‘빨리해라.’ 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 이제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  
두 번째, ‘고쳐라.’ 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것>을 ‘많이 고치는 자’ 가  
성공하고 승리한다.” 하셨습니다.

◆ 선생이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고쳐야 된다.” 입니다.

<잘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 부족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유능하게 되고, 귀히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잘하는 자>라 함은 ‘고친 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발>도 ‘하나의 고치는 일’ 입니다.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의 고치는 일’ 입니다.

◆ 운동선수들도 ‘자기의 부족한 것’ 을 고칠수록  
그 종목에서 우승하고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수’ 하지 않으면,

우승자가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 ◆ 인생을 살 때도, 신앙을 할 때도, 휴거 차원을 높일 때도  
<자기 생각과 행위와 모순과 부족>을 고칠수록  
그 면의 성공률이 높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 ◆ <자기 생각을 삼위일체의 생각으로 고치는 자>,  
<하나님과 성령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고치는 자>,  
<자기 모순과 각종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고치는 자>가  
성공률이 높고,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 ◆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결국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어  
신적 생각과 사고와 행위로 고치는 역사’였습니다.

<안 고쳐진 역사>는 ‘구시대’로 뒤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고친 자들>을  
결국 ‘휴거’ 시키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 ◆ 자동차도 고장 났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장 난 것을 고칠수록

새 차같이 되고, 빛이 나고, 제 성능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 ◆ 하나님 앞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세상에서 구원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최고로 완전하게 고친 자>를 최고로 귀히 보고 쓰십니다.

◆ <휴거 차원>을 높이려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황금 같은 마음>으로 고치기입니다.

◆ 고치고 행해야 - 빛이 납니다.

고치고 행해야 - 제 성능을 발휘하고,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자기 모순과 단점>, <고장 난 듯 정상이 아닌 생각과 행위>는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는 옆에서 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고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는 사람>을 ‘멘토’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사람>이니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고로 늘 <말씀의 물>로 자기를 씻어 내면서,

늘 ‘자기를 고치겠다는 정신’을 잃지 말고 고쳐야 됩니다.

◆ <자기 모순>은 ‘생명을 앗아 가는 병’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정’을 안 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순>을 발견하면 ‘인정’해야,

그때부터 자기가 신경 쓰고 고치게 됩니다.

◆ 삼위와 주 안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모순을 최고로 많이 고친 자>가  
<천국의 가장 좋은 장소>로 가게 됩니다.

삼위와 주 안에서 고친 대로 ‘그 차원의 세계’에 갑니다.

## <잠시 쉬었다가>

◎ 계속해서 <고치는 것>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 ◆ 육신이 자기 생각과 행위를 고친 만큼 ‘영의 형체’가 형성됩니다.  
그 <영의 형체>대로 ‘그 차원의 영의 세계’에 가서 살게 됩니다.

많이 고친 만큼 <영>이 ‘완성된 형체’가 되어  
<높은 차원의 천국>에서 살게 되고,  
안 고친 만큼 <영>이 ‘그 정도’로 형성되어  
<그 아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 ◆ <천국>은 ‘고친 자의 영’이 가고,  
<지옥>은 ‘안 고친 자의 영’이 갑니다.

- ◆ 악평자는 못 고치고, 사망에서 계속 ‘고친 자들’을 악평합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다른 하 차원 극적 고통 세계’로 가게 되고,  
그때 ‘고친 자들’은 그들과 영원히 못 만납니다.

<육의 세계>에서(도) 한 번 갈리면, <영원히> 못 만나기도 합니다.

- ◆ <생각과 행위가 썩은 자>는 ‘갑절’이나 더 썩게 되고,  
결국 ‘배설물 인생’이 되어 ‘배설물 세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썩은 악인들끼리 배설한 것들 속’에서 수영하듯 하고,  
배설물이 ‘자기 눈 밑’까지 닿아서  
그 배설물을 들이마시며 살게 됩니다.

왜 그리되었을까요? 의인들을 악평해서 그리되었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악평’ 을 그리도 해 댔으니,  
그 ‘행위’ 대로 된 것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니, 악평자들이 그 행위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형체’ 도 몰라볼 정도로 변질되어  
<썩은 영 덩어리>가 되어서 ‘썩은 배설물’ 을 먹고 사는데,  
마치 ‘온몸에 진흙으로 팩을 한 자’ 와 같았습니다.

배설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토해내고, 그러다 또 배설하고,  
배설물이 폭포수가 되어 그렇게 연속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 결국 <자기 행위>대로 받고,

그 <영>은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사는 신세’ 가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고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그릇된 생각과 행위>를 목숨 걸고 고쳐라.

100% 고치고 살면 100% 성공하고 승리한다.

고치고 살면 매일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이다.”

◆ 몸에 ‘흉한 문신’ 이 있는데 안 없애면, 평생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마음과 행실>이 있는데 안 고치면,  
계속해서 ‘자기 뇌’ 에 남아 있어서 행하게 됩니다.

고로 보는 자들이 ‘훤한 문신’ 을 보듯 보게 됩니다.

◆ <고치는 것>도 ‘축복’ 입니다.

<고치는 축복>은 정말 ‘크고 웅장한 것’ 입니다.

고로 <고치는 자>는 ‘축복의 행위를 하는 자’ 입니다.

- ◆ 빼어난 미인이라도 ‘성질, 혈기, 각종 모순’ 을 못 고치면,  
그 ‘얼굴’ 도 ‘몸’ 도 안 보입니다.

<모순>이 ‘그 예쁜 얼굴과 몸’ 으로 가서  
‘모순된 얼굴과 몸’ 처럼 보입니다.

고로 그 여자와는 못 살고 헤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왜 저런 미인을 버리지? 제정신이 아니네.” 합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 본 남자’ 는 압니다.

외모는 미인이지만 ‘성질, 혈기, 모순’ 을 달고 안 고치고 사니,  
그 여자를 사랑해도 ‘썩은 냄새, 썩은 맛’ 이 납니다.

그러니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를 비유로 들어 말해 줄까요?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기대하면서 먹었는데, 바로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먹어 보니, 말로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뺨 고기’ 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맛있어 보였는데,  
막상 <맛>을 보니 오바이트가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그릇된 성격과 마음과 행실>을 고쳐야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이 가고 사랑이 갑니다.

- ◆ 고치는 대로 <마음과 생각과 행실>도 빛나고,  
고치는 대로 <영>도 빛나고 신비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 한 가지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요.

- ◆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사고와 행실과 신앙>을 보고,  
전혀 고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꿔는데,  
그 혼이 ‘지옥 쪽’에 가서 묶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끌려가는데,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듯 가고 있었답니다.

자기도 그들과 같이 끌려갔답니다.

그들이 받는 형벌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옥’을  
자기가 행한 대로 ‘계속 도는 형벌’이었습니다.

길은 모두 험한 절벽이었고, 가시밭이었고, 사막이었고,  
너무 어둡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모두 같이 넘어지고,  
언제까지 그 길을 돌아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계속 돌고 있었답니다.

- ◆ 그러다 자기 앞에 가던 어떤 한 남자가  
“너는 몇 바퀴 남았냐?” 하고 물으면서,  
“나는 한 바퀴 남았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 했더니,  
그 남자는 “<각자 입은 옷의 속주머니>에 표시된 것이 있다.  
너도 봐.”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옷의 속주머니를 보니, **나무 조각 3개**가 나왔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남자가 비웃으면서  
“아직 **1000바퀴**는 더 남았네. 평생 돌아야 되겠다.” 했답니다.

- ◆ 망연자실하면서 계속 도는데, 하늘에 ‘새벽 별’이 떠 있었답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한 번씩>  
그 ‘새벽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 ‘새벽 별이 있는 곳’까지 뛰어서 올라가면,  
<지옥>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야.’ 생각했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오직 <메시아>가 ‘나’에게 와서 구원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하고, 아예 ‘그 생각’으로 사고를 굳히고 있었답니다.

- ◆ 그때 갑자기 <뇌>에 ‘빛’이 들어오는 것같이 느껴지더니,

이상한 징조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큰 힘’이 솟아나더니, <하늘>로 솟아올랐답니다.

그런데 ‘새벽 별’까지는 못 가고, <공중>을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주>가 ‘자기’에게 왔고,

절대 <주>를 믿고 행하니

<주>가 ‘자기’를 구해 줘서 그곳을 나왔답니다.

- ◆ 이 사람은 “나는 고칠 것이 전혀 없다!” 하며,  
사고와 생각을 잘못했기에 ‘지옥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사고를 바로 하고 자기 책임을 하고 어느 정도 나오니,

<주>가 이끌어 낸 것입니다.

- ◆ 모두 “나는 고칠 것 없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꿈으로 확인하면서 <실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고와 생각>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 ◆ <사고>를 고쳐야 됩니다.  
<사고>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고>를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가 굳어지면, 마치 쇠를 녹여서 조각을 만든 것 같아서  
다시 녹이기 전까지는 계속 그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 ◆ <아예 지옥에 간 악평자들과 악한 자들>은  
지옥에 가면 ‘자기 사고가 그릇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그러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들>은

아직 ‘자기 사고가 그릇됐다는 것’ 을 모릅니다.

이는 ‘자기 사고가 옳다.’ 고만 알기 때문이고,

‘사탄이 그 사고와 완전히 일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거기서 나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임무를 다 하고 그 영을 지옥에 가두면,

그때부터 혼자 생각합니다.

그때는 ‘자기 어린 시절’ 까지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릇된 사고’ 를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데,

“주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구나.” 하기도 하고,

혹은 “그가 주였구나. 그의 말이 맞구나.” 하며 흰히 알게 됩니다.

◆ 그러나 <이미 지옥에 간 영들>은 거기서 못 나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 현실을 깨닫고,

주의 생각을 바로 알고 주를 찾는 자>는

주가 가서 구해 주어 정상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항상 사람들은 “내 생각은 100% 완전하다.” 하니,

그것이 아니라고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형벌’ 을 받아야 그제야 알게 되고,

그제야 돌이키기도 합니다.

- ◆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은 다르니,  
 <자신의 생각>을 잘라 버리고  
 <하나님과 주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까지 보장되는 삶**’ 을 살게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 ◆ 사랑하는 자끼리도 <성격과 행실>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  
 서로 ‘다시는 못 만나는 길’ 로 가게 됩니다.

주와도 그러합니다.

<마음과 행실>이 안 맞아서 ‘다시는 못 만나는 길’ 로 가게 됩니다.

- ◆ <주>를 ‘머리’ 로 삼고 <자기>는 ‘몸’ 이 되어서  
 <주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천생연분**’ 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주와 일체 된 자**’ 입니다.

고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은 곳’ 에서 삽니다. <끝>

- ◆ <주>를 100% ‘자기 머리로 삼고 사는 자’ 는  
 절대 <주>를 못 떠나고 <주>와 ‘생각’ 이 같습니다.

<자기 머리>는 ‘주’ 이니,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갈 길도 아예 안 가고,

오직 ‘주의 뜻’ 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 ◆ <주>를 ‘자기 머리’ 로 삼고 사니,

항상 <주>와 같이 다니고,  
<자기>는 ‘몸’ 이니 자기가 행하게 됩니다.

<자기 몸>으로 ‘주의 생각’ 을 실천하니,  
자기가 ‘주의 몸’ 이 됩니다.

- ◆ 자기에게 <주의 머리>를 접붙여 놓으면, ‘주와 한 몸’ 이 됩니다.

그러나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 가 완전히 접붙여져 일체 되듯,  
‘완전히 일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의 머리>를 완전히 접붙이지 않았기에

주와 떨어져서 환난으로 쓰러졌고, 이성으로 쓰러졌고,  
혹은 잔머리를 굴리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 ◆ <매일 자기 모순과 그릇된 마음과 사고와 행실을 고치는 자>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얻고,  
주와 함께 잔치하고 누리며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 <전환>

- ◎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  
세 번째, ‘많이 해라.’ 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 ◆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많이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 ◆ 이 말씀을 듣고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이 한 것>이

결국 ‘표적’ 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웅장한 역사’ 를 일으켜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 많이 해야 성공하고 승리한다.

이 말씀에 대해 깨닫고 감동되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천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핵 몇 가지>만 말씀해 주겠습니다.

(\*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화면을 보면서 들어야 확 이해가 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 월명동도 <돌들>을 ‘조금’ 만 쌓았으면,  
<큰 돌>과 <바위>로 쌓았어도  
웅장하지도 신비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큰 돌들>과 <바위들>을 ‘많이’ 쌓았기에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되어  
세계적인 조경, 세계적인 작품, 세계적인 자연성전이 되었습니다.

◆ <소나무들>도 ‘조금’ 만 심었으면 표도 안 났을 것입니다.

100주 이상 ‘많이’ 심고, 수백 번씩 ‘많이’ 거름하고 키워서  
솔향기 진동하는 동산이 되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끝>

◆ 축구, 농구, 핸드볼 경기 때도  
<한 골이라도 더 많이 넣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 ◆ 배구, 테니스, 탁구, 골프 경기 때도

<한 점이라도 더 많이 낸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 ◆ 전도와 관리도 그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전도하고 관리하여 살린 자>가  
더 많은 생명들을 얻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 ◆ 돈도 ‘더 많이’ 있어야

그만큼 크게 일하고,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성전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으면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 만 쓸 수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씩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 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 ◆ 영적으로는 <돈>이 ‘의’입니다.

의를 ‘많이’ 행하여 의가 ‘많이’ 있어야

그만큼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 ◆ 하늘 사랑도 그러합니다.

삼위와 주를 ‘조금’ 사랑하면, <사랑의 잔>이 넘치지 않습니다.

삼위와 주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야

<사랑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항상 <사랑의 잔>이 ‘한 방울’ 이라도 넘쳐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되는 자가 ‘보장된 신부’가 됩니다.

◆ 노래 연습도 ‘많이’ 해야 곡을 더 잘 소화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 섭리역사에 ‘많은 생명들’ 을 전도하여 오게 해야  
교회도, 섭리세계도 더 승리하고 더 성공하게 됩니다.

◆ 운동도 ‘조금’ 하면 몸에 표가 안 납니다.

몸을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운동을 ‘많이’ 해야  
몸매와 건강에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 많이 하면, ‘표적’ 이 일어나고 ‘인간으로서 신’ 이 됩니다.

◆ 글도, 책도, 편지도 ‘많이’ 써야  
그 면으로 더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 화목도 ‘많이’ 이뤄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 기도도 ‘많이’ 해야 더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 말씀과 잠언도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말씀을 ‘조금’ 쓰고, 듣고, 읽으면,  
배고플 때 몇 숟가락만 먹는 격과 같아서  
효과도 별로이고, 힘도 없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 월명동 물도 처음에는 ‘먹는 샘물’ 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많이’ 나오게 하여 ‘호수’ 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수백 명씩 수영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면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 월명동 산책로도 길을 ‘많이’ 냈더니  
하루 종일 가도 못 갈 정도가 되었고,  
그 면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끝>

◆ 주 안에서 <일을 제대로 많이 한 자>가  
<조금 한 자>보다 더 많이 변화되었고, 더 많이 얻었고,  
결국 신앙도, 인생도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주 안에서 바르게 많이 뛰고 행하는 자>가 인생 승리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대화 많이 하기.  
성삼위께 영광 많이 돌리기.  
삼위와 주를 많이 사랑하기. 많이 감사하기. -입니다.  
그래야 많은 자들 중에서 자신 있게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전환 : 말씀 마무리>

◆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까? 감동받았습니까?  
이해되고 감동받은 만큼 행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꼭 ‘행하기’ 바랍니다!

◆ 선생도 뭐든지 먼저 빨리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많이 했습니다.

지구 세상 아무도 그만큼 못 하도록

정말 빨리하고, 고치고, 많이 했기에

〈세계적인 표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뤘습니다.

◆ 오늘 말씀 -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빨리하기. 고치기. 많이 하기>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매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하루에 스무 번씩 노래로 부르듯 하면서 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자, 승리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희망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단! 형식적으로 하거나 이 말씀을 귀히 깨닫지 못한 자는 못 합니다.

◆ 주가 잘 알아듣도록 ‘성공과 승리의 답’을 가르쳐 줘도 안 하면,  
후회도 못 할 자가 되고 맙니다.

뒤에 구름 떼같이 몰려드는 다른 자들이 하기 전에  
어서 ‘빨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비법을 알고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해도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주를 가까이 대하며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귀한 사명을 받고 주의 몸이 되어 행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앞으로는 이 세상에 더욱더 〈시대 복음〉이 뻗어 나가서  
구름 떼같이 더 많은 자들이 몰려듭니다.

이때 빨리 잘하고, 고치고, 많이 하기 바랍니다.

- ◆ 이 말씀을 <지금 바로 행하는 자>는  
월명동 개발 초창기에  
돌과 나무를 쉽게 많이 사 오고 얻어 와서 성공했듯,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 ◆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따라 하면서,  
뇌에 확실히 입력시키고 마치겠습니다. 따라 해요.

<자막> 빨리하고, 고치고, 많이 해야 성공하고 승리한다!

◎ 말씀 마쳤습니다.